

내 친구 고양이

글 | 김은파

그림 | 이가은

글 | 김은파

그림 | 이가은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머루는 고양이입니다.
머루와 나는 아기 때부터 친구였어요.



나는 머루의 밥과 물 당번이에요. 그릇에 사료와 깨끗한 물을 담아 주면 머루는 맛있게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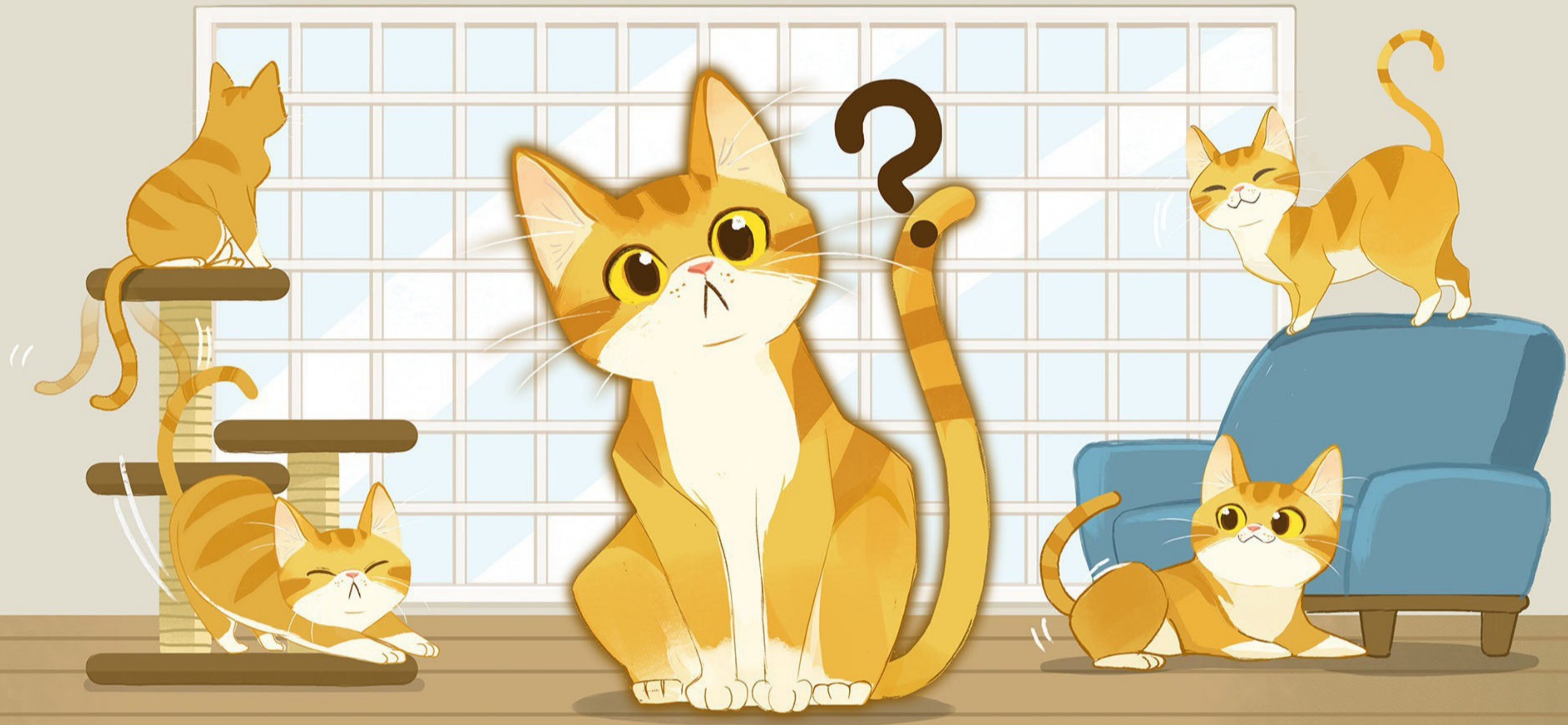
머루의 털을 빗어주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엄마랑 아빠가 해요.



머루는 학교에 안 가지만 내가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와서 구경해요.



가끔은 내 책 위에 엮드려 잠을 자요. 그러면
머루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요.



머루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을 알고 싶을 때는 잘 지켜봐야 해요.



머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그르릉 그르릉’.
보통 기분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 때면 몸을 움츠리고
‘하악’ 소리를 내고요.



밥그릇이 비어 있거나 문이 닫혀 있으면 ‘야옹’
하면서 나를 부른답니다.



머루의 머리를 긁어 주고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면 누구든지 머루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친구 고양이”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